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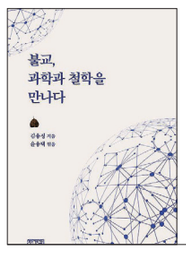
10/30~11/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낡은옷을벗어라:법정스님미출간원고68편수록*법정스님원적10주기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6	철학으로서의불교(대원불교학술총서09)	마크 시더리츠	운주사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주희철학사상의불교적뿌리(대원불교학술총서19)	존 메이컴 엮음	운주사
3	화:마음의불꽃을식히는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8	성자와범부가함께읽는금강경(개정판)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4	일상에서의호흡명상숨(빨리어호흡관법경강의)	래리 로젠버그/미산 한언		9	초기불교이해	각묵 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5	어싱:땅과의접촉이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10	붓다연대기:완전한분붓다의위대한삶과가르침	이학종	불광출판사

책세상

'과학철학자'가 과학·철학으로 푼 '불교'



불교, 과학과 철학을 만나다

김용정 지음 윤용택 엮음
장경각 / 3만원



1세대 칸트 전공자 김용정 학문 책으로
생전에 남긴 강의녹취 · 글 찾아내 묶어
과학 · 철학 통해 불교 진리 이야기해
실린 글들 20~50여 년 전에 쓰인 것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유의미 · 유효해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과학과 철학으로 불교를 이야기한다. 〈불교, 과학과 철학을 만나다〉는 우리나라 1세대 칸트 전공 과학철학자로 불리는 김용정(1930~2019) 교수〈사진〉가 남긴 강의와 글을 제자 윤용택 교수(제주대학교 철학과)가 엮은 책이다. 김용정 교수의 5주기를 추모하는 책은 현대과학과 동서고금의 철학을 통해 불교의 심오한 진리를 이야기한다.

윤용택 교수에 의하면 김용정 교수가 남긴 강의와 글들은 각기 다른 청중과 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단행본으로 묶어내려면 글의 높낮이를 조정해야만 했다. 이 책과 인연이 될 독자들이 불교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불자, 과학도, 철학도임을 감안하고 그 글들의 어떤 부분은 보강하고, 어떤 부분은 더러 생략하기도 했다. 책은 4부로 만들어졌다.

△1부 '불교, 과학, 철학의 삼중주'는 김용정 교수가 1980년 9월부터 1년간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와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있을 때, 볼티모어 성불사에서 1981년 1월부터 8월까지 교수, 대학원생, 의사들을 대상으로 열었던 불교 강좌를 녹취한 강의록이다. 이 장에서는 동서사상의 만남, 불교의 중도사상, 불광과 초능력, 장(場)의 개념으로 보는 불교, 현대물리학과 불교 등의 주제를 다루며 불교와 철학 나아가 과학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불교사상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2부 '〈반야바라밀다심경〉 강의'는 월간 〈불광〉지에 연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뉴욕 원각사에서 열렸던 강좌 내용 일부를 추가하여 보완한 것이다. 김용정 교수는 〈반야심경〉 강의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1980년 겨울 뉴욕 맨해튼 원각사와 1995년 여름 한국불교발전연구원에서 했다. 후자의 강좌 내용은 월간 〈불광〉 255호~266호(1996년 1월~12월)에 '궁극의 이상세계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는 어째서 〈반야심경〉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경전인지 설명하고 있다.

△3부 '철학, 과학과 불교를 만나다'는 김용정 교수가 한창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40대부터 학문이 무르익은 70대까지의 글이 실려 있다. 이것들은 현대과학과 현대철학, 그리고 선종(禪宗)과 관련된 내용들이어서 읽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본장에서 다루고 있는 서양철학과 불교의 만남, 과학철학과 종교의 만남, 과학과 불교의 대화, 과학기술시대의 선의 의미, 선의 깨달음과 이성의 자각 등은 AI 시대에 불교를 되돌아보게 하는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불교가 2500년이 넘은 역사가 오랜 종교이지만, 현대과학과 현대철학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줄 21세기 종교로서 으뜸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4부 '과학, 불교와 철학을 만나다'는 (주)범양사에서 발행했던 계간 〈과학사상〉에 실렸던 글을 다듬은 것이다. 〈과학사상〉은 "과학은 물질적 풍요에 국한하지 않고 철학과 종교와 함께 인간과 사회의 선(善)을 이루고 생태계 파괴를 막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1992년 창간하여 총 50호가 발간되었다. 김용정 교수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편집인을 맡으면서 서양의 과학문명과 동서고금의 철학사상 접목을 위해 애를 썼다. 여기서는 현대과학과 환경문제에 대한 저자의 성찰을 엿볼 수 있다. 본장에서는 현대 생명과학과 불교의 생명관, 생명과학기술과 생명윤리, 과학기술문명과 환경윤리 등을 다루고 있어 기후위기 시대에 불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영감을 준다.

〈불교, 과학과 철학을 만나다〉에 실린 글들은 짧게는 20여 년, 길게는 50여 년 전에 쓰인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오늘에서 이 글들이 여전히 의미가 있고 유효한지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책은 동서고금의 철학과 과학을 폭넓게 소화한 철학자의 안목으로 불교를 조망하고 있다. 결국 '불법(佛法)'이 책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결론은 어렵지 않다.

저자인 김용정 교수는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철학과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칸트에 있어서의 자연과 자유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국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국의 뉴욕주립대학교와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연구교수를 지냈다. 한국철학회장, 한국주역학회장, 한국선문화학회장, 한국불교발전연구원장 등을 역임했고, 계간 〈과학사상〉 편집인을 10여 년 동안 맡았다.

주요 저서로는 〈과학과 불교〉 〈칸트철학연구〉 〈제3의 철학〉 〈과학과 철학〉 등이 있고, 주요 번역서로는 카프라의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및 〈생명의 그물〉, 리프킨의 〈엔트로피 1, 2〉, 스즈키 다이세쓰(鈴木大拙)와 에리히 프롬의 〈선과 정신분석〉, 사다티사의 〈불교란 무엇인가〉 등이 있으며, 이 외에 과학, 철학, 불교와 관련된 70여 편의 논문이 있다.

조선의 숲, 왜 순식간에 황폐해졌나



조선의 의례용 임산물

전영우 지음
조계종출판사 / 1만8천원

18세기 조선 산림의 황폐화 과정 조명
소나무 관재 산림황폐에 끼친 영향 소개
산림 고갈 대처 호남 · 영남 사찰림 활용

'지구'에 대한 걱정이 심각해져 가는 오늘에서 환경의 큰 주제 중 하나인 '산림'에 대한 아쉬운 이야기를 책으로 만난다. 울창했던 조선의 숲이 순식간에 황폐화된 아픈 이야기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와 만나야 하는 이유는 망가져가는 지구를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진지하게 수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책 〈조선의 의례용 임산물〉은 18세기 조선 산림의 황폐화 과정을 조명한다.

'소나무 박사'로 알려진 전영우 명예교수(국민대)는 18세기 조선을 강타한 산림 황폐의 발생 원인을 찾기 위해 30년 동안 노력한 끝에 황장(소나무), 율목(밤나무), 향탄(숯) 같은 조선 왕실의 의례용 임산물이 중요한 실마리라는 것을 알아냈다. 책이 출간된 이유에는 조선의 의례용 임산물 조달에 기여한 사찰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함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의 의례용 임산물〉은 울창했던 조선시대 숲이 황폐화된 역사를 사실 자료를 기반으로 조명했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시신을 화장해서 유골을 사찰에 안치하는 불교식 장례의식이 성행했던 것에 반해 조선은 〈주자가례〉의 매장식 장례 방식에 따라 소나무로 된 관이 왕실 장례의 필수품이 됐다. 그에 따라 백성들 사이에서도 소나무로 된 관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육친에 대한 효도라고 생각했다.

조선 왕정은 왕실 장례에 필요한 의례용 임산물 조달에는 헌신을 다했지만, 일반 백성이 장례에 사용하는 소나무 관재는 물론이고 일상에서 사용하는 목재와 땔감의 수급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그 때문에 산림 황폐화가 본격화된 18세기에 이르면 관재 값이 4~5배자 급등하고, 백성들이 가장 저렴한 관 1부를 사려면 밭 600평을 살 수 있는 금액인 50냥을 지불해야 했다.

조선 조정은 왜 왕족의 관재 조달에 활용한 방법을 백성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을까.

책은 조선 조정이 임산물 조달에 있어 백성을 위해서는 무능했지만 왕실을 위해서는 유능했던, 그 차별적 산림정책이 조선 후기에 발생한 산림 황폐화에 어떤 영향을 미쳐 왔는지 면밀하게 밝힌다.

책의 구성으로 내용을 보면, △1장에서는 소나무가 조선시대 왕실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의 관재로 자리 잡게 된 과정을 살핀다. 이와 함께 관재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폐단들과 이를 막기 위한 조선 조정의 노력, 그럼에도 소나무 관재가 산림 황폐에 끼친 영향들을 차례로 소개한다.

△2장에서는 조선 후기 관의 가격이 400~500냥에 달한 이유가 산림 황폐로 인한 소나무 자원의 고갈과 함께 조선에서 제재용 톱을 생산(개량)하지 못한 점도 간과할 수 없음을 조선과 일본 사례를 비교하고, 제재용 잉거톱 제작 여부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조선 조정이 왕실 제례 품목 가운데 하나인 위패(위판)를 만들기 위해 밤나무 목재를 국용주재로 지정하면서, 밤나무를 어떻게 확보하고 조달했는지를 살핀다. 그 과정에서 18세기에 심화한 임산자원 고갈에 대처하고자 호남과 영남의 사찰림들을 활용한 배경 등을 고찰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조선시대 성리학적 통치행위에 있어서 왕족의 유택인 능·원·묘에 쓸 숯과 제향(祭享) 경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왕, 후궁, 왕자 등에게 배정된 향탄산을 살펴본다. 하지만 늘어나는 능침의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지자 한양 인근이 아닌 강원도와 전라도, 경상도까지 향탄산을 배정하면서 날로 심화되는 산림 황폐화에 백성들까지 곤궁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사찰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향탄봉산을 관리한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해본다.

박재완 기자

도서출판 운주사 • 밝은사람들 총서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권석만 외/25,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외/20,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우희종 외/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20,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정준영 외/22,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오강남 외/18,000원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정준영 외/18,000원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20,000원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미산 외/20,000원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구병수 외/20,000원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권석만 외/22,000원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 김성구 외/22,000원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 권석만 외/20,000원
번뇌, 끊어야 하나 보듬어야 하나 이필원 외/22,000원
의지, 자유로운가 속박되어 있는가 이필원 외/24,000원
본성, 개념인가 실재인가 이필원 외/25,000원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 한상희 외/23,000원





YouTube 유튜브에서
"밝은사람들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지난 학술연찬회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혜, 타고나는가 배워지는가
이필원 · 장진영 · 김호귀 · 이진우 · 권석만 집필
신국판양장/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